

**민선 9기, 생존을 위한
전직원 AI 행정혁신 교육 제안서**

- AI는 수단이고, 주민의 삶이 목적입니다 -

2026. 7.

한국공공자치연구원
AI행정 혁신연구소

1. 지금, 왜 전 직원이 AI를 배워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 지자체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 같은 예산 조건의 지자체 중 어디는 AI를 활용하여 성과를 냈고, 어디는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결정의 타이밍'이었습니다.

- 민선 9기의 지방행정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생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격차는 기술 도입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지금 벌어지는 AI 역량의 격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 AI는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일하는 직원의 숙련도, 지역 현안에 맞는 아이디어 활용 노하우,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국비 등은 오직 시간과 함께 축적됩니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국비를 더 확보하여 성과를 내며 앞서가는 동안, 늦게 시작한 지자체는 영영 그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처리하여 확보한 시간과 여력을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도의 가치 창출에 쏟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찰력과 맥락적 판단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야말로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2. 본 과정의 핵심

- 본 교육은 단순한 'AI 사용법' 강의가 아닙니다. 행정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실전 교육입니다. 특정 도구의 기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이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 습관을 기릅니다.
- AI가 진화해도 변하지 않는 업무 능력을 길러줍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유도하는 '5W1H+1' 프롬프트 설계 기법을 통해 공무원의 질문하는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 **범용적인 툴 교육을 지양합니다.** 인구 감소, 재정 확보, 지역 소멸 등 해당 지자체 고유의 현안에 AI를 접목합니다. 단순한 프롬프트를 넘어 조례, 지침, 지역 데이터를 AI 정보 생태계에 연계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관점을 제공합니다.
-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 전파자(AI 챔피언)를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가 조직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정착되는 문화를 만듭니다.

3. 안전한 AI 도입과 리스크 관리

AI 도입 시 단체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행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분류	유 형	AI 활용 방식
단순·정형 (위임 확대)	탐색형 / 정리형 / 반복운영형	정보 수집, 요약, 반복 처리에 AI를 폭넓게 위임하되 인간의 결과 확인 필수
분석·창출 (협업 중심)	데이터해석형 / 생 성형 / 판단지원형 / 상호작용형	데이터 분석, 문서 생성, 의사결정 보조. AI와 협업하되 인간이 최종 방향 결정
고차·책임 (인간 주도)	창의탐구형 / 고위험 책임형	창의적 기획 및 법적·윤리적 책임이 큰 업무. AI는 참고만 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판단

※ 환각(Hallucination) 감지 훈련

AI 도입의 가장 큰 리스크는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검증 없이 맹신하는 것'입니다. 교육 전 과정에 걸쳐 AI의 그럴듯한 오류를 잡아내는 훈련을 포함합니다. AI를 맹신하지 않고 검증하는 습관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공문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행정 사고를 철저히 예방합니다.

4. 조직 변화를 이끄는 단계별 교육 로드맵

진입부터 조직 내 완전한 정착까지 지자체와 동반하는 5단계 과정입니다.

단 계	대 상	형 태	주요 내용
1. 진입 세미나	단체장 및 간부	2~3시간	AI 행정혁신의 핵심 맥락 파악으로 AI 교육 도입의 필요성 확인
2. 기초 특강	전직원	3~7시간	AI 리터러시 강화 및 환각 감지 체크리스트 확보
3. 실무 심화	실무자	14시간~	부서별 Ready-to-Use 프롬프트 및 실무 적용 사례집 제작
4. AI 챔피언 양성	핵심 인재	3개월	내부 강사 육성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 확보
5. 정착 자문	조직 전체	리테이너	AI 활용 제도화, 성과 측정 리포트, 국비/기금 연계 기획안 도출

5. 성과 측정 및 지속 가능성

- 만족도가 아닌 '실질적 변화' 측정: 교육의 성과는 단순 설문이 아닌 사전·사후 진단을 통한 역량 향상 수치화, 현업 적용도, 실제 업무 시간 절감 데이터로 명확히 보고됩니다.
- 예산 확보의 선순환: 본 교육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및 기금 사업과 연계한 기획안을 도출하여 교육 자체가 성과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번 뒤흔친 시간과 조직 역량은 영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가 먼저 성과를 만듭니다.
타 지자체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지금, 한발 앞서 나가시길 권합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AI행정혁신연구소 박상득 소장 (010-9145-1318, beacon_korea@naver.com)